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경제성장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근거는 불충분
 - 마·일 재무장관, 물가 급등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역내 국채수익률 스프레드는 합리적
 - OPEC, 내년 글로벌 원유수요 증가세는 금년 대비 둔화 전망. 공급부족은 지속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강도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9%],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6월 소비자물가 및 기업실적 관련 경계감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관련주 강세 등으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약보합, 엔화는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경기불안 등이 반영. 국채수익률 역전 지속
 독일은 역내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으로 1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06.2원, -5.9원) 0.4% 하락, 한국 CDS 보합

		7/12일	7/11일	전일대비			7/12일	7/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18.8	3,854.4	-0.92%	국채 금리 10y	미국	2.97%	2.99%	-2bp
	유럽	417.04	415.02	0.49%		독일	1.13%	1.25%	-11bp
	중국	3,281.5	3,313.6	-0.97%	CDS 5y	한국	53bp	53bp	0bp
	일본	26,337	26,812	-1.77%		중국	83bp	82bp	1bp
	한국	2,317.8	2,340.3	-0.96%	위험 지표	EMBI+	-	471	-
환율	달러지수	108.16	108.02	0.13%		VIX	27.29	26.17	4.28%
	유로화	1.0037	1.0040	-0.03%		WTI유	95.84	104.09	-7.93%
	엔화	136.87	137.44	0.42%	원자재	구리	329.7	343.8	-4.10%
	위안화	6.7249	6.7190	-0.09%		금	1,726.0	1,734.0	-0.46%
	원화	1,312.1	1,303.9	-0.6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경제성장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근거는 불충분

- 백악관 관계자들은 그 동안 발표된 경제지표를 고려 시, 노동 및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지만 1/4~2/4분기에 경기침체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 또한 최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나 아직 정점을 통과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첨언
- 전날 장-피에르 대변인은 6월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고 발언. 시장에서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5월(8.6%) 수준을 상회한 8.8%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가 영향을 받는 등 경기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 노동시장이 양호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경제활동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주들이 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직원을 늘리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
-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목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 향후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제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마일 재무장관, 물가 급등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미국 옐런 장관과 일본 스즈키 재무상은 라우 전쟁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한편 저소득국가에 대한 부채탕감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
- 옐런 장관은 엔화 가치의 큰 폭 하락을 인식하고 있으나,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미국 재무부의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

■ 독일 7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 대비 큰 폭 하락. 에너지 공급 불안 등에 기인

- 해당 지수는 -53.8로 전월(-28) 및 예상치(-38.3) 하회. 이번 결과는 에너지 공급 불안, 중국의 경제 봉쇄, ECB의 금리인상 예고 등이 원인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역내 국채수익률 스프레드는 합리적

- 나겔 총재는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간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채수익률 스프레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적절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언급

■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낮출 방침

- 베일리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9%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를 목표치인 2%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징후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부연

■ OPEC, 내년 글로벌 원유수요 증가세는 금년 대비 둔화 전망. 공급부족은 지속 예상

-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270만배럴 증가하여, 금년 수준(일일 370만배럴)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 다만 내년 글로벌 원유 공급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 공급부족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

■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에 나설 필요

- 주요 에너지 및 광물의 공급원을 다각화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 또한 에너지 공급망을 전략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에너지 독재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

■ 일본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소폭 하락. 사상 최고 수준 지속

- 해당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9.2%로 전월(9.3%) 대비 하락. 하지만 예상치(8.8%)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9.3%)에 근접.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 전문가들은 급등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89.5, 5월(93.1),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7/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베이지북 발표, 유로존 5월 산업생산
- 독일 6월 소비자물가, 중국 6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권, 연준의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우려**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recession fears stoked by patchy US economic data)
 - 6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 PMI를 통해 확인된 고용둔화와 주간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증가 등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6월 일자리 통계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와 긴축적인 금융 여건 강화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
 - 국채시장에서도 향후 경제전망 관련 부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국채 2년물과 10년물 간 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 Vanguard의 John Madziyire는 투자자마다 상이한 경기침체 확률을 제시하지만, 소비 및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
- **미국의 주거비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 - WSJ
(Housing Could Provide More Fuel for Inflation)
 - 주거비는 소비자물가(CPI)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연준의 물가수준 판단에 중요한 지표. 연간 주거비 상승률은 '21년 초 1.4%로 매우 낮았으나 금년 5월에는 5.4%를 기록하며 '15-'19년 평균(3.5%)을 큰 폭 상회
 -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주거비 상승이 금년 및 내년 CPI 상승률과 PCE 물가상승률에 각각 1.1%p, 0.5%p를 더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이는 연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가 2%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준
 -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의 David Wilcox는 금년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예상되나 임대료 상승률은 향후 수개월 동안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
-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여부, 궁극적으로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에 좌우** - 블룸버그
(There's No US Recession Until an Obscure Panel of 'Eggheads' Says It Is So)
- **미국 국채수익률 역전,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시 심화될 소지** - 블룸버그
(Treasury Curve Inversion Deepens to Level Not Seen Since 2007)
- **일본의 낮은 물가상승률, 인구감소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기인** - 블룸버그
(Japan's Lack of Inflation Is Tied to Loose Monetary Polic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